

셴커식 분석이론을 둘러싼 북미 음악이론계의 ‘백인종 프레임’(White Racial Frame) 논란

신동진(연세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면서

미국 북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Texas)의 음악이론 교수 티모시 잭슨(Timothy Jackson)은 2021년 1월 인종차별주의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와 대학원생 1명, 그리고 17명의 음악학, 음악이론, 종족음악학 교수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¹⁾ 소송의 내용은 대학과 관련 인물들이 잭슨 교수의 학문의 자유를 옹호하기보다는 학계의 마녀사냥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2019년 11월 미국 음악이론학회(Society for Music Theory, 이하 SMT)의 총회 모임에서 진행된 필립 유엘(Philip Ewell)의 발표를 배경으로 시작된다. 뉴욕에 소재한 헌터 대학(Hunter College)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수 유엘은 “미국 음악이론계의 백인종 프레임”(Music Theory’s White Racial Frame)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미국 학계에 뿌리 깊게 박힌 백인 중심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는 조성음악 분석의 방법론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셴커식 분석이론’(Schenkerian Theory)을 인종차별주의, 반(反)흑인주의로 점철된 이론이라고 주장하였고, 미국 대학의 음악이론 교과과정이 백인 작곡가들의 작품만을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같은 해 말 북텍사스 대학교에서 잭슨 교수를 중심으로 2005년 이후 발간한 『셴커 연구저널』(*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호에는 유엘 교수의 발표에 응답하는 15명의 셴커 이론가들의 지면 토론이 게재되었는데, 유엘은 자신의 발표에 대한 응답문에 대해 미리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공교롭게도 토론에 참여한 학자들은 모두 백인이었고, 이들의 행동은 이듬해

1) Colleen Flaherty, “Countering Allegations of Racism—in Court,” *Inside Higher Ed* (January 28, 2021),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2021/01/28/professor-counters-allegations-racism-court>.

확산된 흑인 시민운동인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이하 BLM)의 분위기 속에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다. 북텍사스 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은 저널의 출판과정이 동료 심사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윤리적인 이유로 『셴커연구저널』의 폐간과 함께 잭슨 교수를 비롯한 몇몇 교수들의 해임을 학장에게 요구하였다.²⁾ 본 연구는 미국 음악이론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은 셴커식 이론과 인종주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과 그로 인한 미국 음악계의 동향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연주자들에게 조성음악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한 셴커식 분석이론이 미국 음악학계에서 오늘날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살펴보는 일은 미국 교육의 모델을 상당 부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음악계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꼭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2. 셴커와 인종주의

유대계 오스트리아 출신 음악이론가 하인리히 셴커(Heinrich Schenker, 1868-1935)는 독일어권의 몇몇 ‘천재’ 작곡가들의 작품을 ‘위계’의 개념에 입각해 구조적 층위에 속하는 음들을 덜 중요한 음악표면의 사건으로부터 가려내었고, 소위 ‘근본구조’(Ursatz)에서 단계적으로 작곡되어 실제 음악이 도출되는 방식에 의해 걸작이 탄생하는 것으로 보는 고유한 분석이론을 창안하였다. 셴커의 편협한 국수주의적 사고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에 집필된 저술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특히, 『음 의지』(*Der Tonwille*, 1921-1924)의 머리말 “독일 천재의 임무”(Von der Sendung des deutschen Genies)는 다른 민족을 비하하고 독일 인종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발언들로 가득 차 있다.

독일인들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동등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독일인들은 [자신]의 피와 흙의 우수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 독일인은 우수한 사상가, 예술가, 역사가들을 통해 역사와 또 역사가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알아야 한다... 독일인들은 천재의 가장 높은 단계인 창조력이 [앵글로-색슨, 프랑스, 이탈리아, 슬라브 민족들에게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 알게될 것이다.]³⁾

2) 북텍사스 대학교의 익명의 대학원생은 탄원서를 통해 “『셴커연구저널』은 동료 심사평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학술 담론의 기본은 신뢰와 진실성인데, 『셴커연구저널』은 그 신뢰를 위반했다”고 규탄하였는데, 탄원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접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ekRT8tr5RXWRTW6Bqdaq57svqBRRcQK/view>.

3) Heinrich Schenker, “The Mission of German Genius,” in *Der Tonwille. Pamphlets in Witness of the*

제2차 세계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헨커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에서 천재 미학적 이고 민족우월주의적인 사상을 배제하였는데, 예를 들어 오스발드 요나스(Oswald Jonas, 1897-1978)는 헨커의 『자유작법』(*Der freie Satz*, 1935)의 제2판 출판 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음악 이론과 관련이 없는 글들을 삭제하였다.⁴⁾ 1959년 헨커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체계화한 알렌 포르테(Allen Forte, 1926-2014)를 시작으로 미국의 쉐케리안(혹은 포스트 쉐케리안) 이론가들은 헨커의 이론을 과학을 강조하는 미국의 풍토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그들의 분석 레퍼토리를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의 음악 작품들로 확장하였다.⁵⁾ ‘미국화’된 ‘헨커식 이론’(Schenkerian theory)은 본래의 ‘헨커의 이론’(Schenker’s theory)에서 분리되었고,⁶⁾ 1980년대 이후 헨커식 이론은 분석적 효용성을 극대화하여 북미 음악대학의 음악이론 교과목으로 정착하였다.⁷⁾

‘헨커의 이론’과 ‘헨커식 분석이론’을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쉐케리안 이론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제거한 헨커식 분석이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헨커 이론의 형성 과정에 집중하는 많은 음악학 연구를 파생시켰다.⁸⁾ 칼 샤흐터(Carl Schachter)는 2001년 연구에서 오늘날의 헨커식 접근에 대한 교습에서 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할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였고, 헨커 이론의 성공은 오로지 그의 조성음악에 대한 통찰력에 기인한 것이지 정치적 사상과는 무관하므로, 이데올로기의 고려가 분석 실습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결론지었다.⁹⁾

Immutable Laws of Music, Offered to a New Generation of Youth, ed. by William Drabkin, trans. by Ian B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7-18 [필자번역].

- 4) 언스트 오스티(Ernst Oster)는 1979년 영문판에서 요나스에 의해 삭제된 헨커의 글을 복원하였는데, 이는 존 로스겔(John Rothgeb)의 번역을 통해 “Appendix 4”로서 추가되었다. Heinrich Schenker, “Appendix 4 Omissions from the Original German Edition,” in *Free Composition (Der freie Satz)*: vol. 3 of *New Musical Theories and Fantasies*, ed. and trans. by Ernst Oster (New York: Longman, 1979), 158-162.
- 5) Allen Forte, “Schenker’s Conception of Musical Structure,” *Journal of Music Theory* 3, no. 1 (1959), 1-30.
- 6) William Rothstein, “The Americanization of Heinrich Schenker,” *In Theory Only* 9, no. 1 (1986), 5-17.
- 7) 1980-90년대에 출판된 헨커식 분석이론을 다룬 교재성 저서들의 증가는 당시 대학교육에서 헨커식 분석이론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Allen Forte and Steven Gilbert, *Introduction to Schenkerian Analysis* (New York: Norton, 1982); David Neumeier and Susan Tepping, *A Guide to Schenkerian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2); Allen Cadwallader and David Gagné, *Analysis of Tonal Music: A Schenkerian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등이 있다.
- 8) 데이비드 비치(David Beach)는 헨커 연구의 동향을 살피는 1985년 글에서 “오늘날의 많은 관심은 헨커를 역사적 인물로 보는 것에 있으며, 그의 이론뿐 아니라 철학적 근본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David Beach, “The Current State of Schenkerian Research,” *Acta Musicologica* LVII (1985), 278.
- 9) Carl Schachter, “Elephants, Crocodiles, and Beethoven: Schenker’s Politics and the Pedagogy of

이듬해 레온 보스타인(Leon Botstein)은 독일의 문화적 오만은 19세기 후반 쉐커가 낳고 자란 갈리시아(Galicia)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는 프랑스의 피상적인 예술 경향, 미국의 물질주의, 슬라브의 미개함에 대한 경멸과 함께 당시 흔한 정서였음을 설명하였다.¹⁰⁾ 니콜라스 쿡(Nicholas Cook)은 2007년 저서 『쉐커 프로젝트』(*The Schenker Project*)에서 쉐커의 방대한 개인적 기록과 서신을 바탕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그가 세기말 비엔나에서 어떻게 자아를 인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음악이론을 정립하게 되었는지의 과정에 대해 저술하였다.¹¹⁾ 쿡은 쉐커의 정치적 믿음이 그의 음악이론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반대하였고, 쉐커식 분석이론을 포함한 쉐커의 이론을 단순한 음악이론이 아닌, 사회 이론으로 이해해야 하며, 철학, 정치, 그리고 인종을 포함하는 하나의 종합적인 ‘과제’(project)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쉐커 이론의 핵심 중 하나는 구조적으로 다른 중요성을 갖는 음악적 사건에 대한 차등적 인식으로, 유엘은 이러한 견해를 인종차별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엘은 쉐커의 많은 개인적 기록들이 공개된 웹사이트 *Schenker Documents Online* (<http://schenkerdocumentsonline.org>)에서 단순히 ‘race’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57개의 결과가 나올 만큼 쉐커의 인종적 발언이 잦았음을 지적하며, “무능하거나 원시적인 인종들”(less able or more primitive races), “열등한 인종들”(inferior races), “야생적이고 반(半)야생적인 민족들”(wild and half wild peoples), “동물적 일본인”(the animal Japanese) 등의 표현을 사례로 쉐커의 인종차별적 태도를 고발하였다.¹²⁾ 1995년 오스트리아 음악학자 마틴 아이블(Martin Eybl)은 “쉐커의 세계관이 그의 음악이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쉐커의 세계관으로 인해 그의 음악이론이 쓸모없다는 주장만큼이나 이해하기 힘든 선입견이다”라며 쉐커의 세계관과 음악이론의 연관성을 설파하였는데,¹³⁾ 같은 맥락에서 샤희터는 쉐커의 위계적 세계관과 위계적 음악이론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¹⁴⁾ 유엘은

Schenkerian Analysis,” *Theory and Practice* 26 (2001), 1–20.

10) Leon Bostein, “Schenker the Regressive: Observations on the Historical Schenker,” *The Musical Quarterly* 86, no. 2 (2002), 242.

11) Nicholas Cook, *The Schenker Project: Culture, Race, and Music Theory in Fin-de-siècle Vien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2) 본고에서 참고한 유엘의 주장은 그가 비메오(Vimeo)에 공유한 음악이론 총회의 발표 영상과 함께 온라인 저널 *Music Theory Online*을 통해 출판된 논문을 참고로 하였다. Philip Ewell, “Music Theory and the White Racial Frame,” *Music Theory Online* 26, no. 2 (September 2020), <https://mtosmt.org/issues/mto.20.26.2/mto.20.26.2.ewell.php>.

13) 아이블의 글은 Martin Eybl, *Ideologie und Methode: Zum ideengeschichtlichen Kontext von Schenkers Musiktheorie* (Tutzing: Hans Schneider, 1995)에 실려 있으나, 본 논문은 Ewell, “Music Theory and the White Racial Frame”에 인용된 영어번역을 참고하였다.

14) “... while it might be tempting to relate Schenker’s hierarchical world view to his hierarchical theory

많은 학자들이 웬커의 인종주의를 분명히 인식해왔고, 이제는 웬커의 인종에 대한 견해와 음악에 대한 견해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역설한다.

웬커가 인종주의자였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웬커식 이론이 뿌리를 내린 북미의 사회 구조에도 인종 간의 위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유엘이 새롭게 지적하는 문제 점은 무엇인가? 쿡은 웬커의 세계관과 음악이론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도출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not very helpful)고 표현하였는데, 유엘은 이러한 쿡의 발언을 “음악이론의 백인종 프레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unhelpful to music theory’s white racial frame)는 의미로 해석하였고, 웬커의 인종주의와 그의 음악이론 사이의 “분명한 유사성”은 음악이론에서 인종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extremely helpful)고 반박하였다.¹⁵⁾ 즉, 유엘은 웬커 학자들의 태도와 그들이 형성해온 공동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고(再考)하기 시작한 것이다.

3. 필립 유엘의 주장

“음악이론은 하양다”(Music theory is white)는 선정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는 2019년 발표에서 유엘은 사회학자 조 피진(Joe Feagin)이 주장한 백인 중심의 구조화된 인종주의의 개념인 백인종 프레임을 미국의 음악이론계에서 찾는다. ‘백인종 프레임’이란 유색인종을 차별하기 위해 형성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뜻하는 말로, 피진은 『백인종 프레임』(*The White Racial Frame*, 2009)을 통해 미국사회에서 백인종 프레임은 백인을 가장 상위 계층의 인종에 놓음으로써 그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¹⁶⁾ 유엘은 자신을 미국 음악이론학계의 유일한 흑인 부교수라고 소개하면서, 학회가 1995년 인종의 다양성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한 이래 20년간 멘토십 프로그램이나 장학금 지급 등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사 결과 여전히 학회 구성원의 84.2%, 정규직을 가진 음악이론가의 90.4%, 그리고 부교수 이상의

of levels (and tracing such a relationship is not necessarily invalid)...” Schachter, “Elephants, Crocodiles, and Beethoven,” 13.

15) 쿡의 진술을 자유롭게 인용하며 펼치는 유엘의 주장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well, “Music Theory and the White Racial Frame,” [4.3.4].

16) Joe Feagin, *The White Racial Frame: Centuries of Racial Framing and Counter-Framing* (New York: Routledge, 2010), 146.

93.9%가 백인임을 지적하였다. 유엘은 백인들이 음악이론 학계에서 모든 권력을 소유하여 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단단히 자리 잡은 백인종 프레임이 그러한 권력을 제도화했다고 역설하였다.

사회학자 에두알도 보닐라-살바(Eduardo Bonilla-Silva)는 오늘날 은밀히 증가하는 ‘컬러블라인드 인종주의’(color-blind racism)가 과거의 인종차별에 비해 덜 노골적이지만 더 영향력 있음을 강조하였는데,¹⁷⁾ 유엘은 이러한 형태의 인종주의를 음악이론계에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형태로 꼽았다. 유엘은 음악과 인종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을 대표적인 컬러블라인드 인종주의의 예로 보았고, 백인종 프레임 속의 음악이론가들은 이러한 부정을 통해 자신들이 올바른 인종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위장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유엘은 음악이론계의 백인 프레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본 믿음들을 다섯 가지로 나열하였는데, 첫째, 백인들의 음악과 음악이론이 가장 좋은 체제라는 믿음, 둘째, 18-20세기 초 독일어권 출신의 백인들의 음악과 음악이론이 이론적인 사고의 정점에 해당한다는 믿음, 셋째, 음악이론의 학계와 구조는 인종이나 백인주의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불공평하거나 부적합하다는 믿음, 넷째, 최고의 학문은 이론가의 인종과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성취되어 왔다는 믿음, 다섯째, ‘다양성’(diversity)이라는 말과 그를 위한 조치가 인종차별과 불평등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피진은 또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불평등이 ‘화이트워싱’(whitewashing)의 과정을 통해 지속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는데,¹⁸⁾ 유엘은 열렬한 인종주의자인 쉐커가 미국 이론가들에 의해 화이트워싱 되었고, 이렇게 재구성된 쉐커식 이론은 음악이론계의 지배적인 인종인 백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존재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화이트워싱의 예로 유엘은 포르테가 영역본 『자유작법』의 서문에서 쉐커의 불쾌한 발언들에 대해 “이 자료들의 대부분은 쉐커의 음악적 개념들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무시해도 좋다”고 서술한 것을 제시한다.¹⁹⁾ 이와 유사하게 쉐커의 『대위법』(*Kontrapunkt*)의 서문에서 존 로스겍(John Rothgeb)은 쉐커의 어떤 음악적 규칙들도 그의 음악 외적인 사고와 관련이 없으며,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떤 철학적 문맥도 필요치 않다고 저술하였는데,²⁰⁾ 유엘은 로스겍의 관점이 “음악이론은 인종이나 백인성과 관련이 없다”는 백인종 프레임

17) Eduardo Bonilla-Silva, *Racism without Racists: Color-Blind Racism and the Persistence of Racial Inequality in America*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3). ‘color-blind racism’에 대한 적절한 우리 말 번역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그대로 읽어 표기하였다.

18) 더러운 곳을 흰색 페인트로 덧칠하여 결점을 숨긴다는 뜻의 ‘화이트워싱’(whitewashing)은 영화계에서 인종을 바꾸어 연기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유색인종에게 백인적 가치를 강요하는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19) Allen Forte, “Introduction to the English Edition,” in *Free Composition (Der freie Satz)* by Heinrich Schenker, ed. and trans. by Ernst Oster (New York: Longman Publishers, [1935] 1979), xviii.

의 믿음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

2019년 유엘의 발표는 백인 우월주의자로 알려진 셴커의 사고에서 출발한 셴커식 이론이 어떻게 대부분의 음악대학에서 중요하게 존속해왔는지를 반문하였고, 음악이론의 관습적인 분석 전략들이 유럽의 클래식 음악을 가장 연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지해 왔음을 비판하였다. 이의 해결방안으로 유엘은 대부분의 음악대학에서 개설하는 4개의 핵심 이론 수업들을 2개로 줄일 것과 함께 비유럽 전통의 음악을 대상으로 하는 이론 수업을 추가적으로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시작으로 음악이론에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함으로써 명백히 백인적인 음악이론의 뼈대를 재구성하고, 진정한 인종의 다양화를 이루는 바람을 밝혔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유엘의 연구는 같은 해 말 큰 난항을 겪는데, 잭슨이 이끄는 『셴커연구저널』의 12호 논문 공모에는 유엘을 비판하기 위한 많은 셴커 전문가들이 집합하게 된다.

4. 『셴커연구저널』 12호

『셴커연구저널』 12호에 실린 90쪽에 달하는 유엘의 발표에 대한 응답문은 저자를 밝히지 않은 글을 제외하면 13명의 백인 남자에 의해 쓰였으며, 그 중 5명은 『셴커연구저널』의 편집위원이거나 자문위원이었다. 유엘의 음악이론학회 발표 논문인 “음악이론계의 백인종 프레임”에 응답한 지면 토론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유엘의 주장에 대한 셴케리안 학자들의 가장 큰 반론은 셴커의 인종주의를 시대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니콜라스 쿡은 유엘이 자신의 연구를 언급한 것을 재언급하며 음들의 불평등이 인종의 불평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유엘의 의견에 다소 동의한다. 하지만 쿡은 셴커의 사상이 오늘날에는 인종주의적일 수 있으나 당시에는 극단적인 정치적 믿음의 표현이었고, 따라서 우리는 항상 현재와 과거의 다른 세계관에 주목해야한다고 반론하였다.²¹⁾ 데이비드 비치(David Beach)는 셴커의 인종주의적 발언들이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²²⁾ 찰스 버카르트(Charles Burkhart)는 셴커 이론에서 음들 간 불균형을 인종 간 불평등과 동일시한 유엘의 주장은 지나치다며 비판하였다.²³⁾ 몇몇 이론가들은 셴커식 이론의 자율성을 강조하였

20) Heinrich Schenker, *Counterpoint: A Translation of Kontrapunkt by Heinrich Schenker*, ed. by John Rothgeb (New York: Schirmer Books, [1910 and 1922] 2001), xiv.

21) Nicholas Cook, “Response to Philip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54.

22) David Beach, “Schenker—Racism—Context,”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27.

는데, 알렌 캐드월래더(Allen Cadwallader)는 로스겍의 주장처럼 쉐커는 어떤 음악 외적인 사유에도 의존하지 않았음을 믿는다고 밝혔고,²⁴⁾ 잭슨은 쉐커의 이론에서 기술적인 음악분석을 철학, 정치, 미학적 주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²⁵⁾

	저자	논문명	페이지 번호
	INTRODUCTION		125-126
1	David Beach	“Schenker—Racism—Context”	127-128
2	Richard Beaudoin	“After Ewell: Music Theory and ‘Monstrous Men’”	129-132
3	Jack Boss	“Response to P. Ewell”	133-134
4	Charles Burkhart	“Response to Philip Ewell”	135
5	Allen Cadwallader	“A Response to Philip Ewell”	137-140
6	Suzannah Clark	“Patterns of Exclusion in Schenkerian Theory and Analysis”	141-152
7	Nicholas Cook	“Response to Philip Ewell”	153-156
8	Timothy L. Jackson	“A Preliminary Response to Ewell”	157-166
9	Stephen Lett	“De-Scripting Schenker, Scripting Music Theory”	167-172
10	Rich Pellegrin	“Detail, Reduction, and Organicism: A Response to Philip Ewell”	173-178
11	Boyd Pomeroy	“Schenker, Schenkerian Theory, Ideology, and Today’s Music Theory Curricula”	179-182
12	Christopher Segall	“Prolongational Analysis without Beams and Slurs: A View from Russian Music Theory”	183-188
13	Stephen Slottow	“An Initial Response to Philip Ewell”	189-194
14	Barry Wiener	“Philip Ewell’s White Racial Frame”	195-205
15	Anonymous	“An Anonymous Response to Philip Ewell”	207
	BIBLIOGRAPHY FOR THE RESPONSES		209-214

〈표 1〉 유엘의 “음악이론계의 백인종 프레임” 대한 토론 목록

유엘은 미국인들이 인종을 이해하는 방식이 백인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백인 학자들은 유엘 자신과는 달리 쉐커와 그의 이론의 인종적 측면을 지적하지 않으며, 자신과 같은 유색인종의 관점은 쉽게 무시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²⁶⁾ 이러한 유엘의 의견이 『쉐커연구저널』 12호의 저자들에게 깊이 존중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보이드 포메로이(Boyd Pomeroy)는 “인종주의가 음악이론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유엘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좋게 말해 어

23) Charles Bukhart, “Response to Philip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35.

24) Allen Cadwallader, “A Response to Philip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39.

25) Timothy L. Jackson, “A Preliminary Response to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66.

26) Ewell, “Music Theory and the White Racial Frame,” [4.7.1].

설프다”라며 유엘의 논리를 폄하하였다.²⁷⁾ 책은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 독일의 인종차별적 사고는 흔한 것이었으며 독일 문화 어디에나 존재했음을 부연 설명하였고,²⁸⁾ 익명의 저자 또한 셴커와 동시대인들의 인종차별적 견해는 전혀 주목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기술하였다.²⁹⁾ 결과적으로 유엘은 음악이론의 역사에 내재한 근본적인 인종주의를 문제시하였으나, 『셴커연구저널』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인종문제는 역사 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흔한 것이었으므로, 따라서 셴커의 인종주의적 태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유엘은 음악 교재에서 그랜트 스틸(William Grant Still)이나 조플린(Scott Joplin)등 흑인 음악가의 예를 늘리는 것이 인종적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는 그 레퍼토리를 떠받치는 음악이론과 서양의 기능화성을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대학의 음악이론 수업에 있음을 지적하였다.³⁰⁾ 다른 종류의 음악이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유엘에게 잭 보스(Jack Boss)는 도리어 흑인 음악가들의 작품을 셴커식 이론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흑인 음악가들도 천재의 작품을 생산할 수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단언하였다.³¹⁾ 비치 또한 비슷한 반응을 보였는데, “필립 유엘을 향한 나의 제안은 그가 우리 백인들에 대한 불평을 그만두고 흑인 작곡가들의 작품을 분석한 정교한 셴커식 그래프를 발표하는 것이다”는 다소 무례한 발언을 하였다.³²⁾ 나아가 비치는 “나에게 셴커는 우수한 사람이고, 그의 통찰력은 우리가 조성 레퍼토리의 명작들의 다듬어진 구조를 볼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주었다”며 셴커 이론을 찬양하였다.

유엘은 셴커의 인종주의에 대한 방어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셴커의 유대인 정체성 강조에 대해 이는 다른 소외된 그룹으로 주의를 돌림으로써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려는 백인종 프레임의 일환으로, 인종주의를 용인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³³⁾ 그럼에도 적은 소수민족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셴커가 인종주의자라는 유엘의 주장이 상황에 맞지 않으며, 셴커의 부인이 테레지엔슈타트(Theresienstadt) 강제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⁴⁾ 책은 또한 셴커 아내가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실을 언급하

27) Boyd Pomeroy, “Schenker, Schenkerian Theory, Ideology, and Today’s Music Theory Curricula,”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79.

28) Jackson, “A Preliminary Response to Ewell,” 160.

29) Anonymous, “An Anonymous Response to Philip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207.

30) Ewell, “Music Theory and the White Racial Frame,” [3.4].

31) Jack Boss, “Response to P.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33.

32) Beach, “Schenker—Racism—Context,” 128.

33) Ewell, “Music Theory and the White Racial Frame,” [1.4].

며 만약 쉐커가 살아있었다면 그 역시 수용소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역설한다.³⁵⁾ 잭슨은 과연 백인 중 프레임이 유대인이었던 쉐커에게 해당되는 개념인지를 질문하며, 독일어권의 비엔나 사회에서 타자(他者)로 인식된 쉐커의 유대인 제자들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특권을 받았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결론이라고 설파하였다. 잭슨은 나아가 유엘이 쉐커와 쉐커 학자들을 반흑인주의로 비난한 것을 반셈주의(anti-Semitism)와 연관시키며 미국의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을 더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는데,³⁶⁾ 이러한 잭슨의 발언은 이후 유엘-잭슨의 논쟁을 대중들에게 흑인 학자 대 유대인 학자 간의 인종 갈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유엘을 반박한 쉐커 이론가들의 글은 이듬해에 불거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힘입어 음악학계와 나아가 대중들로부터 맹렬한 비난의 화살을 받게 되었다. 많은 음악학자들은 SNS, 신문 기사, 블로그의 글을 통해 논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고, 그중 상당수가 리처드 뷰도인(Richard Beaudoin), 수잔나 클라크(Suzannah Clarke), 크리스토퍼 시걸(Christopher Segall)의 세 편을 제외하곤 대부분이 모욕적이고 인종주의적인 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의 음악이론 교수 메건 라벤구드(Megan L. Lavengood)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선배 학자에게 “당신들의 방어적 반응이 객관적인 것이 아닌, 개인적인 자존심과 불쾌함에 서 온 것이 아닌지를 고려하라”는 따끔한 충고를 남겼고,³⁷⁾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교(Dalhousie University)의 음악학 교수 자클린 워윅(Jacqueline Warwick)은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지역의 온라인 출판물의 기사를 통해 백인 우월주의와 서양음악의 우수성은 음악이론 분야뿐 아니라 음악학, 종족음악학이 모두 갖고 있는 전제이며, 음악을 가르치는 모두가 함께 허물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하였다.³⁸⁾

34) Cook, “Response to Philip Ewell,” 155.

35) Jackson, “A Preliminary Response to Ewell,” 159.

36) Ibid., 162.

37) Megan L. Lavengood,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Proving the Point,” *Megan L. Lavengood* (July 27, 2020), <https://meganlavengood.com/2020/07/27/journal-of-schenkerian-studies-proving-the-point/>.

38) Jacqueline Warwick, “Music Education Has a Race Problem, and Universities Must Address It,” *The Conversation* (August 9, 2020), <https://theconversation.com/music-education-has-a-race-problem-and-universities-must-address-it-143719>.

5. 음악학계의 반응

유엘의 주장은 음악학계의 자성적 성찰을 가져온 1985년의 조셉 커먼(Joseph Kerman)의 도발을 상기시킨다.³⁹⁾ 유엘의 연구가 음악학계에 ‘신음악학’을 초래했던 커먼의 경우와 같은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나, 논란 당시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필자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학계와 대학은 인종 문제에 대해 충분히 지속하고 변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론편이나 음악학 학회의 몇몇 지부들은 자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커리큘럼의 다양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0년 5월 25일 미국 경찰들의 잔인한 진압으로 인해 질식사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미국 정부와 경찰들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고질적인 공권력 남용을 고발한 BLM운동은 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에도 불구하고 전(全)미,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미국 공공장소에 설치된 위인들의 동상이 과거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이유로 철거되었고, 많은 건물, 장소 등의 공식 명칭이 바뀌었으며, 대학 교육과정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작되었다. “조직적 인종차별(systematic racism)을 근절하자”는 움직임은 대학과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미국음악학학회(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이하 AMS)의 회장 수잔 쿠식(Suzanne G. Cusik)은 2020년 6월 3일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붙여”(On the Death of George Floyd)라는 제목의 단체 이메일을 통해 학회 회원들에게 앞으로의 강의, 이벤트, 저서, 대화 등에서 조직적 인종차별의 근절을 요구하였고,⁴⁰⁾ 다음날인 6월 4일 미국 음악이론학회(SMT)와 종족음악학회(Society for Ethnomusicology, 이하 SEM)도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을 각각 발송하였다.⁴¹⁾

인종차별에 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던 미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유엘의 연구에 대한 『셴커연구저널』 12호의 지면 토론에 당사자인 유엘 교수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반(反)윤리적인

39) Joseph Kerman, *Contemplating Music: Challenges to Music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40) Suzanne G. Cusick, “On the Death of George Floyd—A Letter from the AMS President,”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June 3, 2020),

<https://www.amsmusicology.org/news/news.asp?id=510806&hhSearchTerms=%22systemic+and+racism%22>.

41) 이메일 발송과 함께 각 학회들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공표된 내용들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EM Board of Directors, “SEM Board Statement of Solidarity,” *The Society for Ethnomusicology* (June 4, 2020), <https://www.ethnomusicology.org/news/news.asp?id=511153&hhSearchTerms=%22systemic+and+racism%22>. Patricia Hall, “President’s Statement on George Floyd,” *SMT* (June 4, 2020), <https://societymusictheory.org/announcement/presidents-statement-george-floyd-2020-06>.

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이 커졌고, 저널의 책임자인 잭슨 교수를 파문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대해 SMT의 이사회는 2020년 7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음악이론학회 이사회는 『셴커연구저널』에서 발간한 “Symposium on Philip Ewell’s 2019 SMT Plenary Paper”에 포함된 몇몇 에세이에서 계속된 반(反)흑인적 진술과 필립 유엘을 향한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규탄한다. 이 심포지엄의 구상과 실행은 우리 학문의 윤리적, 전문적, 학자적 기준들에 부합되지 않았다. 몇몇 글들은 괴롭힘과 윤리에 관한 우리 학회의 규범을 위반한다. 보고에 따르면, 해당 저널의 자문위원회는 동료 심사의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글들을 모았고, 저자를 밝히지 않은 글을 실었으며, 유엘의 연구를 논의하는 곳에 정작 유엘을 초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막음은 유엘 개인을 배척하기 위함이며, 백인주의 문화를 답습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의 사례로 명백히 인종차별이다. 우리는 우리 학문 분야에 깊게 형성된 백인주의와 조직적 인종차별을 해체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는 점을 깊이 인지한다. 이사회는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유색인종의 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중재에 헌신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 중에 있다.⁴²⁾

위의 글이 발표된 5일 후 잭슨은 『전국학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lars)에 게재된 “해고된 음악이론가의 항변”(A Canceled Music Theorist Responds)이라는 글을 통해 그간의 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 유엘은 저명한 음악이론가인 쉐커를 ‘악성 인종주의자’로 못 박았고, 근대 음악 이론은 인종차별을 근간으로 제도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쉐커를 가르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음악이론을 ‘화이트워싱’한다고 주장한다. 평생을 쉐커의 아이디어를 연구하고 가르친 우리는 인종주의자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이를 반박할 용기를 내었고, 『셴커연구저널』을 통해 공개적인 아카데미 논쟁의 일반적인 방법을 따랐다. 우리는 유엘을 포함하여 모든 SMT 회원에게 논문공고를 공지하였으나, 유엘에게는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다. 저널이 그의 목소리를 부인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나는 유엘과 함께 이 인종차별 반대의 같은 편에 있다. 나는 여전히 쉐커이론에는 인종주의를 뛰어넘는 보편적 인류애가 있다고 믿는다.⁴³⁾

한편, 유엘-잭슨의 논쟁에 대한 유럽의 분위기는 미국과는 사뭇 달랐는데, 유럽의 이론가들은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의 명예교수 니콜라스 미우스(Nicolas Meeuw)를 중심으로 온라인 공간

42) Executive Board of SMT, “Executive Board Response to Essays in the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vol. 12,” *SMT* (July 28, 2020), <https://societymusictheory.org/announcement/executive-board-response-journal-schenkerian-studies-vol-12-2020-07>.

43) Timothy Jackson, “A Canceled Music Theorist Responds,” *National Association of Scholars* (August 3, 2020), <https://www.nas.org/blogs/article/a-canceled-music-theorist-responds>.

인 ‘열린 서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고, 미국의 음악이론가들과 소통하고자 하였다.⁴⁴⁾ 미우스와 유럽 이론가들은 『헨커연구저널』의 학자들의 응답을 유엘의 연구보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더 논리적이라고 평가하였고, 그들의 응답에서 어떠한 반 흑인적 진술도, 유엘에 대한 인신공격도 식별할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유럽 학자들의 반응은 필자가 2020년 겨울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후 국내에서 관찰한 것과 유사한데, 미국에서 느꼈던 헨커식 이론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대한민국의 음악이론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미우스는 유엘이 헨커가 오늘날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의 이론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개진하였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전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토론을 촉구하였다.

2021년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을 기념하기 위해 유엘은 트위터에 그간 연구되지 않은 흑인 작곡가와 음악가들에 대한 글을 매일 기록하는 개인 프로젝트 ‘피부색 지우기 삭제하기’(Erasing Colorasure)를 연재하였다.⁴⁵⁾ 같은 해 3월 25일 세계적 음악 관련 학술지의 색인 과 초록을 제공하는 RILM(Répertoire International de Littérature Musicale)는 음악에 대한 저술의 기록과 보급이라는 의무를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의도를 밝히며 유엘의 글을 *The RILM Blog: bibliolore*을 통해 발행하였다. 흑인 음악가들의 설명에 앞서 유엘은 글의 서두에서 『헨커연구저널』에서의 잭슨의 글인 “우리는 [흑인 작곡가들이] 매우 위대한 클래식 음악가들의 수준만큼의 ‘최고의 천재들’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그들의 음악을 기쁘게 들을 수 있다”를 인용하면서,⁴⁶⁾ 미국 음악계의 인종주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음악이론의 역사에서, 그리고 미국 클래식 음악에서 백인성은 끊임없이 비(非)백인성의 존재를 하찮은 것으로 삭제 하였다. 나는 이를 ‘피부색 지우기’(colorasure)라고 부르는데, 이는 같은 상황이 여성에게 발생하였을 때 만들어진 케이트 메인(Kate Manne)의 유용한 개념인 ‘그녀 지우기’(herasure)를 바탕으로 한다... 수백 명의 중요한 흑인 음악인들 중 나는 미국 음악이론에 관심을 두었을 법한 음악이론가들과 작곡가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려는데, 미국 음악이론계는 진정 흑인성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나의 ‘피부색 지우기 삭제하기’(Erasing Colorasure)의 프로젝트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극찬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흑인 음악가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음악에 대한 대화와 미국 음악 커리큘럼에 등장했기 때문이지 2021년 음악이론 영역의 백인-남성 권력 구조를 위협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미국 음악 이론

44) Nicolas Meeüs et al., “Open Letter on Schenker’s Racism and its Reception in the United States,” *Heinrich Schenker* (2021년 4월 30일 접속), <https://heinrichschenker.wordpress.com/open-letter-on-schenkers-racism-and-its-reception-in-the-united-states/>.

45) 유엘의 표현인 ‘colorasure’은 ‘color’(색깔)과 ‘rasure’(삭제)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색깔’은 피부색을 의미하므로, 필자는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colorasure’를 ‘피부색 지우기’로 번역하였다.

46) Jackson, “A Preliminary Response to Ewell,” 165.

을 지탱하는 ‘세 개의 축’은 백인성, 남성성(maleness), 시스젠더주의(cisnormativity)이다... 어떻게, 그리고 왜 백인 시스젠더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는 의식적으로, 흑인성과 또 다른 형태의 비(非)백인성에 대한 논의를 피해 왔는지 조사하고 드러내는 것은 학구적 음악 연구에 있어 진정한 반인종주의적 작업이다... 이 작업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백인-시스젠더-남성 권력 구조에 도전하고 그것을 위협하게 되는데, 이것이 왜 음악 학계에서 진정한 반인종주의가 종종 분노와 괴롭힘, 통제의 반응을 마주하는지의 이유이다... 백인 우월주의와 반 흑인주의의 궤변에서, 백인 서양음악의 정전(正典)은 여전히 세상의 다른 비(非)백인의 음악들보다 우위에 있다... 『웬커연구저널』 12호의 잭슨의 발언은 1960년대부터 미국 음악이론계에 깊게 자리 잡은 믿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잭슨의 음악적 믿음이 선배 음악이론가, 음악가, 그리고 미국 음악 교육기관들의 교수자 사이에서 보편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기쁘게도, 미국의 음악 연구 흐름은 백인 남성 음악의 우월성의 불합리하고 유해한 믿음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젊은 학자들은 미국 음악 학계에서 백인 남성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상된 서양 남성 음악의 규범이 세상의 다른 종류의 음악들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또한 열등하지도 않다는) 단순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음악의 학구적 연구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더욱 정직한 반인종주의의 평가는 미국에서, 또한 여전히 배타주의적인 백인-시스남성의 세 축 위에서 있는 학구적 음악 연구의 중심에서 필요하다... 교실에서, 연주회 무대에서, 그리고 그 밖의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음악들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희망한다.⁴⁷⁾

6. 나가면서

윌엘-잭슨의 논란은 지난 2년간 미국 음악이론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제도적인 인종주의를 근절하려는 사회의 목소리와 함께 인종주의자였던 웬커는 미국 대학과 학계에서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잭슨이나 웬커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인종주의자이며 백인종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처럼 인식되었고, 평생을 웬커식 이론에 몸담아온 이론가들은 잭슨의 행보를 멀리서 지켜보며 몸을 사려야 했다. 잭슨은 2005년 국내의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Korean Society for Music Theory)의 창립 행사에 초청되는 등 한국과 인연이 깊은 이론가로서, 그가 인종차별주의자로 몰렸던 미국 음악계의 상황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웬커식 이론의 미국 음악이론계에서의 영향력은 잠시 주춤한 듯 보이나, 대한민국의 웬커식 이론의 위상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미국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음악이론이 미국의 사건과 동떨

47) RILM, “Philip Ewell: Erasing Colorism in American Music Theory, and Confronting Demons from Our Past,” *The RILM BLOG: bibliolore* (March 25, 2021), <https://bibliolore.org/2021/03/25/philip-ewell-erasing-colorism-in-american-music-theory-and-confronting-demons-from-our-past/>.

어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음악이론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에서 학위를 마친 학자들의 개인적인 연구주제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웬커식 이론은 미국 포스트 웬케리안의 지도하에서 수학한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매우 제한적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국내의 학위 논문이나 학회 논문의 주제를 보면 웬커식 이론이 꾸준히 그 중요성을 확장해왔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이론은 그것이 정착되는 사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과 절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 이론가들에 의해 ‘미국화’된 웬커식 이론은 우리나라에 건너와 한국의 환경에 맞게 정착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화’된 웬커식 이론은 미국의 상황과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인종 문제는 다민족의 미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유럽의 경우에서처럼 우리 또한 유엘과 잭슨의 논쟁에서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유색인종인 한국인이 인종문제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따라서 글로벌 사회의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 음악분야에서도 인종 문제에 대해 한 번쯤은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아시아 혐오와 2021년 3월 16일의 애틀랜타 한인 총격 사건은 우리에게 인종문제가 그저 흑인과 백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준다.

많은 음악학자들의 주장처럼 웬커의 사상적 이론은 단순히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웬커식 이론은 그와는 별개로 미국 음악이론가들에 의해 생명력을 부여받고 유통된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서 웬커식 이론은 악곡의 구조를 큰 그림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강점으로 인해 연주자의 음악이론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웬커의 음악 외적 사상들은 크게 부각된 적도, 그러한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미국 음악이론계의 백인종 프레임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으로, 건강한 논쟁은 학자들 개인에게는 자신만의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되고, 학교나 학계 단위에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더 나은 구조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조성음악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인 웬커식 이론이 앞으로는 어떠한 추이를 겪게 될지가 궁금해진다.

검색어

웬커 이론(Schenker's Theory), 웬커식 분석이론(Schenkerian Analysis), 웬커연구저널(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백인종 프레임(White Racial Frame), 화이트워싱(whitewashing), 컬러블라인드 인종주의(color-blind racism), 조직적 인종차별(systemic racism)

참고문헌

- Anonymous. "An Anonymous Response to Philip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207.
- Beach, David. "Schenker—Racism—Context."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27-128.
- _____. "The Current State of Schenkerian Research." *Acta Musicologica* LVII (1985): 275-307.
- Bonilla-Silva, Eduardo. *Racism without Racists: Color-Blind Racism and the Persistence of Racial Inequality in America*.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2003.
- Boss, Jack. "Response to P.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33-134.
- Bostein, Leon. "Schenker the Regressive: Observations on the Historical Schenker." *The Musical Quarterly* 86, no. 2 (2002): 239–247.
- Bukhart, Charles. "Response to Philip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35.
- Cadwallader, Allen. "A Response to Philip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37-140.
- Cook, Nicholas. "Response to Philip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53-156.
- _____. *The Schenker Project: Culture, Race, and Music Theory in Fin-de-siècle Vienn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Cusick, Suzanne G. "On the Death of George Floyd – A Letter from the AMS President."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June 3, 2020.
<https://www.amsmusicology.org/news/news.asp?id=510806&hhSearchTerms=%22systemic+and+racism%22>.
- Ewell, Philip. "Music Theory and the White Racial Frame." *Music Theory Online* 26, no. 2. (September 2020). <https://mtosmt.org/issues/mto.20.26.2/mto.20.26.2.ewell.php>.
- Feagin, Joe. *The White Racial Frame: Centuries of Racial Framing and Counter-Framing*. New York: Routledge, 2010.
- Flaherty, Colleen. "Countering Allegations of Racism—in Court." *Inside Higher Ed*, January 28, 2021.

- <https://www.insidehighered.com/news/2021/01/28/professor-counters-allegations-racism-court>.
- Forte, Alle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Edition." In *Free Composition (Der freie Satz)* by Heinrich Schenker, edited and translated by Ernst Oster. New York: Longman Publishers, [1935] 1979.
- _____. "Schenker's Conception of Musical Structure." *Journal of Music Theory* 3, no. 1 (1959): 1-30.
- Hall, Patricia. "President's Statement on George Floyd." *SMT*, June 4, 2020.
<https://societymusictheory.org/announcement/presidents-statement-george-floyd-2020-06>.
- Jackson, Timothy. "A Canceled Music Theorist Responds." *National Association of Scholars*, August 3, 2020. <https://www.nas.org/blogs/article/a-canceled-music-theorist-responds>.
- _____. "A Preliminary Response to Ewel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57-166.
- Kerman, Joseph. *Contemplating Music: Challenges to Music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5.
- Lavengood, Megan L.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Proving the Point." *Megan L. Lavengood*, July 27, 2020.
<https://meganlavengood.com/2020/07/27/journal-of-schenkerian-studies-proving-the-point/>.
- Meeùs, Nicolas, et al., "Open Letter on Schenker's Racism and its Reception in the United States." *Heinrich Schenker*, 2021년 4월 30일 접속.
<https://heinrichschenker.wordpress.com/open-letter-on-schenkers-racism-and-its-reception-in-the-united-states/>.
- Pomeroy, Boyd. "Schenker, Schenkerian Theory, Ideology, and Today's Music Theory Curricula."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12 (2019): 179-182.
- Rothstein, William. "The Americanization of Heinrich Schenker." *In Theory Only* 9, no. 1 (1986): 5-17.
- RILM. "Philip Ewell: Erasing Colorasure in American Music Theory, and Confronting Demons from Our Past." *The RILM BLOG: bibliolore*, March 25, 2021.
<https://bibliolore.org/2021/03/25/philip-ewell-erasing-colorasure-in-american-music-theory-and-confronting-demons-from-our-past/>.

Schachter, Carl. “Elephants, Crocodiles, and Beethoven: Schenker’s Politics and the Pedagogy of Schenkerian Analysis.” *Theory and Practice* 26 (2001): 1–20.

Schenker, Heinrich. *Free Composition (Der freie Satz)*: vol. 3 of *New Musical Theories and Fantasies*, edited and translated by Ernst Oster. New York: Longman, 1979.

_____. *Counterpoint: A Translation of Kontrapunkt by Heinrich Schenker*, edited by John Rothgeb. New York: Schirmer Books, [1910 and 1922] 2001.

_____. “The Mission of German Genius.” In *Der Tonville: Pamphlets in Witness of the Immutable Laws of Music, Offered to a New Generation of Youth*, edited by William Drabkin, translated by Ian B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SEM, Board of Directors. “SEM Board Statement of Solidarity.” *The Society for Ethnomusicology*, June 4, 2020.

<https://www.ethnomusicology.org/news/news.asp?id=511153&hhSearchTerms=%22systemic+and+racism%22>.

SMT, Executive Board. “Executive Board Response to Essays in the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vol. 12.” *SMT*, July 28, 2020.

<https://societymusictheory.org/announcement/executive-board-response-journal-schenkerian-studies-vol-12-2020-07>.

Warwick, Jacqueline. “Music Education Has a Race Problem, and Universities Must Address It.” *The Conversation*, August 9, 2020.

<https://theconversation.com/music-education-has-a-race-problem-and-universities-must-address-it-143719>.

Controversy on Music Theory’s ‘White Racial Frame’ over Schenkerian Analysis in North America

Dong Jin Shin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Schenkerian theory and racism in United States today, which will be historically significant in music scholarship. In November 2019, African-American theorist Philip Ewell presented his paper “Music Theory’s White Racial Frame”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of Music Theory (SMT) and pointed out ‘White Racial Frame’ embedded in American music theory. Ewell argued that Schenkerian theorists have ‘whitewashed’ Schenker’s theory and deni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theory and race, which he claimed to be ‘color-blind racism.’ At the end of the same year, the *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 published by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UNT), issued the journal volume 12 that featured fifteen Schenkerian theorists’ responses to Ewell’s presentation. With the movement of ‘Black Lives Matter’ in 2020, the fifteen white writers of the volume were denounced as racists, and young music theorists criticized the senior theorists through social media for the sake of eradicating systemic racism in American academia. Some graduate students at UNT demanded to dissolve the journal and even fire professor Timothy Jackson, who was in charge of its publication. SMT condemned anti-black statements in the journal and their personal attacks against Ewell, but European theorists were skeptical about SMT’s reaction and called for a global discussion on the future of Schenkerian theory. Meanwhile, to commemorate Black History Month in February 2021, Ewell conducted a personal project “Erasing Colorasure,” posting about black musicians on Twitter, and publicized the series of his writings through the RILM blog. In South Korea, Schenkerian analysis has been a useful methodology that helps music performers to see musical structures more clearly. Although it is hard to detect the negative impact of North America’s

Schenker-racism controversy in South Korea, I claim that we should channel our attention to the current situation of Schenkerian theory in the United States as we follow the American education system.

셴커식 분석이론을 둘러싼 북미 음악 이론계의 ‘백인종 프레임’(White Racial Frame) 논란

신동진

본 연구는 북미 음악이론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을 2020년 셴커식 이론과 인종주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과 그로 인한 미국 음악계의 움직임에 대해 소개한다. 2019년 11월 미국 음악이론학회(Society of Music Theory)의 총회 모임에서 흑인 이론가 필립 유엘은 “미국 음악 이론계의 백인종 프레임”(Music Theory’s White Racial Frame)이라는 연구 발표를 통해 미국 학계에 뿌리 깊게 박힌 백인 중심주의를 고발하였다. 사회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유엘은 북미의 셴케리안 이론가들이 인종주의자인 셴커의 이론을 ‘화이트워싱’(whitewashing)해왔음을 주장하였고, 음악이론과 인종의 관계를 부정하는 백인 학자들의 태도를 ‘컬러블라인드 인종주의’(color-blind racism)로 규정하였다. 같은 해 말 북텍사스 대학교(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발간된 『셴커 연구저널』(*Journal of Schenkerian Studies*)의 12호에는 유엘의 발표에 응답하는 15명의 셴커 이론가들의 지면 토론이 게재되었는데, 토론에 참여한 백인 학자들은 2020년 확산된 흑인 시민운동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의 분위기 속에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 조직적 인종차별(systemic racism)을 근절하기 위한 젊은 이론가들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셴케리안 이론가들을 비판하였고, 북텍사스 대학교의 대학원생들은 저널의 폐간과 함께 책임자인 티모시 잭슨(Timothy Jackson) 교수를 해임할 것을 학장에게 요구하였다. 음악이론학회는 『셴커 연구저널』 12호의 반(反)흑인적 진술과 유엘을 향한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규탄하였으나, 유럽의 이론가들은 미국 음악 이론계의 이러한 대처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며 셴커식 이론의 앞날을 위한 세계적인 토론의 기회를 촉구하였다. 한편 2021년 2월 유엘의 트위터에는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기 위한 흑인 음악가들의 연구가 연재되었고, “피부색 지우기 삭제하기”(Erasing Colorasure)라는 개인프로젝트는 RILM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되었다. 지난 2년 북미에서 큰 위기를 겪은 셴커식 이론과 인종주의에 대한 논란의 영향을 국내에서 감지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연주 전공자들에게 조성음악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론으로 자리매김한 셴커식 이론이 미국사회에서 오늘날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 교육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음악 대학들의 나아갈 방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을 제안한다.

논문투고일자: 2021년 5월 2일

심사일자: 2021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5월 29일